



## 3/4분기 비금융법인기업 자금조달 규모 증가

채원영 연구원

- 2012년 3/4분기 중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38조 2,000억 원으로 2/4분기대비 17조 8,000억 원 증가하였는데, 이는 투자확대 보다는 여유자금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2012년 3/4분기 중 비금융법인기업은 주로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.
  -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38조 2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7조 8,000억 원 증가하였음.
    - 이 중 기업어음 및 회사채 등 채권 발행이 15조 1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7조 2,000억 원 증가하였음.
  - 이는 3/4분기 들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조달 비용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
- 또한, 조달된 자금은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나 현금자산 확보 목적인 것으로 보임.
  -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14조 6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2조 2,000억 원 증가하였음.
    - 이 중 현금, 상거래신용 등이 13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제 및 단기저축성 예금이 4조 1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조 4,000억 원 증가하였음.
    - 반면 장기저축성예금은 2/4분기 중 3조 9,000억 원에서 3/4분기 -2조 9,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이는 기업들이 실물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보다는 현금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(2012년 3/4분기 중 자금순환(잠정), 한국은행, 12/14)